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오늘 정선에서 개막

하이원팰리스호텔 일원
강원경제인상 시상식도

강원경제계 최대 교류의 장인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이 6일 오후 3시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 팰리스볼룸에서 막을 올린다.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와 협업 기회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기관·단체장, 출향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네트워킹을 다진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강원도 스타기업 발굴의 산실인 제12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대상인 일자리창출기업상을 비롯해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 5개 부문 수상자 6명이 상패와 함께 총 7,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상식 후에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강원경제인포럼이 열린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상직 이사장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범인에 대해 기초강연을 한다.

이어 특별강연자로 나중호 한국중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이 '스몰기업에서 스페셜기업으로 살아남는 차별화 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세부 논의가 이뤄진다.

행사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8시에는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 '경제마인드로 세상 보기'란 주제로 초찬강연을 한다. 이와 함께 강원경제인골프대회가 열려 화합을 다진다. 신하림기자 peace@kwnnews.co.kr